페트병 수돗물 사 먹을까, 말까?

광주 등 17개 지자체 생산…10월부터 판매 허용

일부 유해 화학물질 검출, 안전성·신뢰성 논란

환경부가 오는 10월부터 수돗물을 페트병에 담아 판매할 수 있도록 '병입(甁入) 수돗물'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최근 일부 지역 페트병 수돗물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수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고 있다.

광주시도 지난해부터 '빛여울수'라는 이름으로 병입 수돗물을 공공 행사장 등에서 시민들에게 무료 공급하고 있어 판매가 정식으로 허용되는 10월까지 수질에 대한 안전성을 확실하게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 17개 지자체서 병입 수돗물 공급**=현재 국내에서 병입 수돗물을 생산하고 있는 곳은 광주(70여만병)를 비롯해 서울, 대전, 부산 등 전국 17개 지자체가 매년 1천만병(500㎖ 기준) 가량을 생산하고 있다. 당초 수도법 제13조(영리행위 금지 등)에는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는 수돗물 병입수 판매금지 규정이 있었지만, 각 지자체와 전경련 등이 지나친 규제라며 허용을 요청했고 지난 4월 환경부가 먹는물관리법 등을 개정, 공급이 이뤄졌다.

◇**낡은 수도관망 등 수돗물 불신 여전**=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여전히 병입 수돗물의 판매에 반대하고 있다. 낡은 수도관망과 부실한 옥내 급수시설 관리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은 만큼 정수장 물을 페트병으로 판매하더라도 수돗물 자체의 신뢰도 제고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환경부가 시민들에게 질 좋은 수돗물을 활성탄 및 특수 소독처리를 해 잔류 염소를 줄인 뒤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현재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을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도정수 과정을 거치겠다는 의미여서 그 배경에도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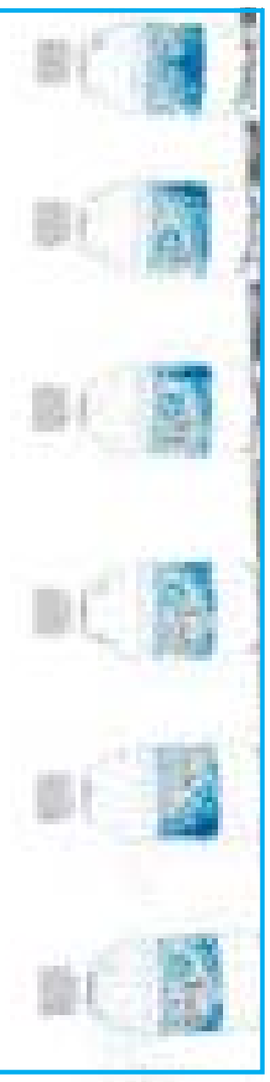
◇**일부 병입 수돗물서 화학물질 발견되기도**=한국소비생활연구원이 최근 병입 수돗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한국환경수도연구소에 의뢰, 보존기간에 따른 수질변화를 검사한 결과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화학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de)와 소독제 부산물인 클로랄 하이드레이트(chloral hydrate)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생활연구원에 따르면 활성탄 및 소독 재처리를 한 A지자체의 병입 수돗물은 7일이 지난 뒤, 재처리과정을 거치지 않은 B 지자체의 제품은 5일 경과 후 아세트 알데히드가 검출됐고 시간이 지나면서 양이 증가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수처리기술의 고도화 및 중소규모화, 실시간 수질 모니터링, 통신망을 이용한 수질관리, 수도사업 반관 반민영화 등과 같은 기술과 제도가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병입 수돗물인 빛여울수의 시판 계획은 아직 없으며 보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황토 흙집·전통한옥 직접 지어보세요

장흥군, 편백숲 우드랜드 건축 체험장 운영

장흥군이 오는 8월까지 3개월간 전통 한옥과 황토흙집 건축 등을 실제로 배우는 '편백숲 우드랜드 생태건축 체험장'을 운영한다.

장흥군은 생태건축에 관심이 많은 만 19세 이상 체험단 30명을 모집, 장흥읍 우산리 억불산에 조성된 우드랜드에서 전통 한옥 이축과 황토흙집 신축, 원목생활가구 제작 등 일반인들이 평소 배우고 싶은 생태주택을 실제로 건축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은 월~토요일 주 6일간 진행되며 참가비용은 없다.

전통한옥 이축은 우드랜드 한옥촌 내 전통 한옥 2동을 이축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며 기초(터 닦기), 기둥 및 벽체, 바닥·지붕·창호, 마감 등의 기술을 배울 수 있다.

또한 황토흙집 신축은 우드랜드 흙집촌내 흙집 1동을 신축해볼 수 있으며 건축전문가와 체험단이 직접 기초부터 마감까지 모든 과정을 배울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8월까지 교육을 마친 수료생은 생태건축체험장 수료증을 교부할 계획"이라며 "체험단 모집기한은 만료됐으나 문의가 쇄도하고 있어 희망자가 있을시 전화상담 및 희망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는 061-860-0422.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원숭이도 물고기 잡아먹는다

印尼 긴꼬리 원숭이 물고기 사냥 첫 목격

인도네시아의 긴꼬리원숭이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로운 행동이 목격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긴꼬리원숭이는 다양한 환경에 적응해 먹이를 잘 바꾸고 게와 곤충까지 먹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행동은 처음 발견된 것이다.

환경단체 '자연보존'과 '대영장류 트러스트'의 과학자들은 인도네시아 동칼리만탄과 북수마트라 주의 강가에서 지난 8년동안 긴꼬리원숭이들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장면을 4차례 목격했다고 국제영장류연구저널 최신호에 발표했다.

이들은 긴꼬리원숭이들이 물고기까지 잡아먹게 된 원인은 확실치 않지만 이들의 환경 적응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지적하고 "이들은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는 지식을 가진 생존경쟁의 승자이다. 이들의 행동은 생태학적 융통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원숭이들의 이런 행동이 이들의 집단적인 문화인지, 아니면 전체와는 동떨어진 일부 개체의 개별적 행동인지는 연구팀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런 행동이 "희귀하고 전체와는 동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이전에도 일본의 짧은 꼬리원숭이와 차크마개코원숭이, 아누비스개코원숭이, 침팬지, 오랑우탄이 물고기를 잡아먹는 행동이 관찰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원숭이가 물고기를 잡아먹는 원인은 먹이가 부족하거나 가뭄으로 강의 수위가 낮아져 고기를 잡기가 쉬워졌거나, 서식지 파괴로 주식 공급처가 사라졌기 때문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산소 생산 뛰어난 '거머리말' 완도서 국내 최대 군락 발견

생태 좋은 소안도 일대

지구 온난화 주범인 이산화탄소(CO_2)를 흡수하고 산소 생산이 탁월해 연안습지 생태계의 중요 자원으로 분류되는 거머리말(잘피)의 국내 최대 규모 군락지가 완도군에서 발견됐다.

1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해양생태계 조사를 통해 완도군 소안도 일대에서 국내 최대 규모로 추정되는 거머리말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군락지는 약 3㎢에 이르고 거머리말, 수거머리말과 애기거머리말 등 3종이 서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수거머리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에만 분포하는 고유종으로 알려져 법정 보호대상 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최근 연안 바다환경의 악화로 인해 거머리말 개체수 및 분포 면적이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나 지난 5~6년 사이 소안도 일원에 대규모 군락을 형성한 것은 이 지역의 연안 생태계 및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거머리말은 수질정화와 광합성 기능이 뛰어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잘 흡수할 뿐 아니라 계절적으로 번성했다 사라지는 일반 해초와 달리 1년 내내 안정적인 바닷속 풀밭을 형성함으로써 생물의 다양성 증진, 기름유출 사고 시 자연정화 기능 등을 갖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거머리말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물이니 만큼 서식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와 적극적인 보전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최근 발견된 완도군 소안도 일대의 거머리말 군락지.

〈수중촬영한 거머리말의 잎 부분〉

〈발육상태를 볼 수 있는 뿌리〉

행사장서 날리는 풍선 바다 거북 등 죽음 초래

생태학자들 금지 촉구

축하 행사나 추모 행사 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선 날리기가 야생동물들의 죽음을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져 학자들 사이에서 금지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BBC 뉴스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영국 해양보존협회(MSC)의 해양 생물학자들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행사장에서 날려 보내는 풍선들이 바다새나 거북, 포유류 등의 사인이 되고 있다면서 이런 동물들의 사체 사진을 공개했다.

이들이 공개한 사진 중에는 위장 속에 풍선이 들어있는 거북과 풍선에 매달린 끈으로 다리가 칭칭 묶인 큰부리바다오리 등의 모습이 포함돼 있다. /연합뉴스

숲해설가 광주·전남협, 초급 양성 과정 인증

숲해설가 광주전남협회(상임대표 이관우)가 최근 산림청에서 인증하는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 중 '초급과정'에 관한 인증을 영·호남 지역 최초로 획득했다.

숲해설가는 시민들에게 숲과 자연에 관한 지식을 제공하는 등 숲과 사람을 연결하는 전문 능력을 지닌 사람으로 산림청은 전국에서 6개 기관에 교육기관 인증제를 수여했다. 올해에는 숲해설가 광주전남협회 등 2개 기관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영·호남 지역 최초 인증기관으로 등록됐다.

광주전남협회는 지난 2002년 제1기를 시작으로 숲해설가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150여명의 숲해설가를 배출했으며, 광주·전남 지역의 도시 숲, 학교 숲, 하천, 갯벌 습지 등에서 숲해설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